

세계가 인정한 中企명품 이렇게 많았네



광주경제 뉴엔진
‘투자유치기업’이 된다

2 작지만 강한 명품제조기

대기업 납품이 아닌 자체적인 완성품을 제조하는 지역 중소기업의 수는 한정돼 있다. 그 중 특히 첨단기술력을 가지고 국내를 넘어 세계를 상대로 영업하는 업체는 드물 수밖에 없다. 이들 첨단 중소기업들은 수 년 동안 자체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그 결과로 완성품을 내놓지만, 높은 제품의 질과 뛰어난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판매망이 미흡하고, 인지도가 낮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기능을 자동화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농기계 기술로 호평을 받고 있다. 경운이앙기와 복토직파기를 합쳐 놓은 형태인 이 직파기는 세계 최초로 개발됐으며, 화학비료를 땅속에 묻어주고 씨앗과중 및 규산질 비료복토를 해줌으로써 병충해에 강하며, 비료 이용 효율이 높고, 화학비료 사용량을 1/3로 줄일 수 있다.

트랙터에 로터리를 부착하듯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현재 20여 개 국에 특허를 출원중이며, 품질이 우수하고 생산비 절감과 친환경적이라는 이점 때문에 북한과 중국



〈다기능 복토직파기〉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을 생산해냈다.

(주)나영산업도 삼성광주전자의 대표적인 납품업체로 명성을 쌓아 자체 상품을 내놓고 있다. 삼성광주전자에 OEM방식으로 김치냉장고 등을 납품하고 있는 이 업체는 지난 2006년부터 틈새시장을 노려 소주냉동고 ‘설레임’과 냉동보존고 ‘설레임 플러스’를 직접 판매하고 있다. 17년 동안 다듬어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성능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지역 내에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못한 실정이다.

소주냉동고 ‘설레임’은 주류마다 다른 도수의 특성을 고려, 빙점에 가깝게 보관할 수 있으며, 특히 소주를 영하에서 보관할 경우 최적의 맛이 만들어 진다는 것을 염두에 둔 제품이다. 디지털 LED방식 채용, 자석식 전면 도어, 5℃ ~ -22℃ 온도조절장치 부착 등이 특징이다.

냉동보존고 ‘설레임 플러스’ 역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보존식 냉동고 보관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학교 및 단체급식소, 사회복지시설, 직영급식소 등에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다. 디지털 방식의 편리하고 안정된 온도조절(-18℃ ~ -22℃) 및 절전기능, 보존고 내 온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LED 화면 온도표시 기능, 고급스러우면서 세련된 외관 디자인 등이 특징이다.

(주)나영산업의 김대원(38) 과장은 “대기업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최고의 기술로 식단이나 시설 등에서 꼭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냈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내매출이 꾸준히 증가하



〈소주냉동고 ‘설레임’〉

고 있으며, 수입품에 비해 가격이나 성능면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해외수출에도 나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동휠체어·다기능 복토직파기·소주냉동고... 첨단기술 무장, 완성품 생산해 해외 수출

“지역서 먼저 애용해야” 산업 성장 견인

지역 내에서 최근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까지 애용하고 있는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은 물론 차세대 농기계 기술의 완성관이라고 할 수 있는 ‘다기능복토직파기’를 생산하고 있는 (주)금강기전은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 서울사무소를 뒀 전국적으로 판매망을 구축하는 한편 미국, 일본, 중국, 호주,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 수출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다기능복토직파기는 한국 농업의 새로운 혁신적 대안이며, 최첨단 과학기술로 모든

에도 수출되고 있다. 순수 국내 부품을 사용해 자체 생산하고 있는 전동휠체어 역시 타이타늄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가볍고 강도가 높아 안정성과 활동성이 좋은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세련된 유럽 스타일의 4륜 전동 스쿠터도 편리한 조작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열악한 도로 여건에서도 안정된 승차감을 유지할 수 있다.

금강기전의 본래 주력분야는 도장, 사출 가공업으로, 삼성·대우 등 국내 대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이들 자체 완성품

주간 증시 포커스

국내외 경기회복세 시장 흐름 양호

실적개선 업종대표주 매수 할 만

두바이 사태 이후 국내 주식시장이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글로벌 증시에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두바이 사태가 빠르게 진정됨에 따라 글로벌 증시에서의 초점도 금융위기에서 다시금 경기 회복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달 들어 국내 증시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라면 비관 일색이었던 투자심리에서 긍정적 인 시각도 점차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변화의 배경은 지난 두 달 동안 KOSPI지수가 12%의 조정을 겪는 동안에 오히려 연중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간 여타 증시들을 바라봐야 했던 당혹감이나, 두바이 사태가 의외로 빠르게 수습 되어가는 모습에서 얻은 안도감 등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나뭇과대주라 할 수 있는 조선주와 해운주 및 증권주 등이 일제히 거래량 증가와 더불어 반등의 탄력을 높여가는 일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 장기 소외주의 경우 금융 위기 과정에서 펀더멘탈 충격이 특히 컸고, 앞으로도 펀더멘탈의 회복에 대해 자신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의 향후 추가전망에 대한 과도한 비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어 적어도 추세적인 상승 이전에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 반등의 여지는 넓어지고 있다.

기술적 반등 이상의 상승세는 향후 실적 모멘텀의 확인이 뒤따라야겠지만 장기 소외주의 경우

약간의 턴어라운드 조짐도 강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장의 관심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나뭇과대주와 더불어 점진적인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기대감이 실리면서 철강이나 화학 등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기초 소재주들의 메리트도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대 수요처인 중국정부의 강한 경기 부양 의지가 재차 확인되고 있고, 미국 등 선진국 경기도 지속적인 부양 정책에 힘입어 완만하게나마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형성되고 있는 원화 강세도 이들의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주식을 보유하고 연말을 맞으려는 시장의 욕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지수 흐름이라기보다는 종목 중심의 대응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본격적인 지수의 추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4분기 실적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뭇과대 및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대표주 중심으로 추가적인 상승시도가 전개될 가능성을 겨냥한 매수 대응의 유지를 권한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본점: 082-227-9940

충청점: 082-227-9970

호남점: 061-752-9940

북도점: 061-262-9200

석산점: 063-851-2422

하이난

하이난(삼아) 직항

무안 ↔ 하이난(삼아) 직항

항공사	출발시간	도착시간	항공료
대한항공	08:00	10:00	₩1,100,000
제주항공	08:30	10:30	₩1,000,000
진에어	09:00	11:00	₩1,100,000
에어서울	09:30	11:30	₩1,000,000
에어부산	10:00	12:00	₩1,000,000
에어인천	10:30	12:30	₩1,000,000
에어제주	11:00	13:00	₩1,000,000
에어부산	11:30	13:30	₩1,000,000
에어인천	12:00	14:00	₩1,000,000
에어제주	12:30	14:30	₩1,000,000